

▣ 정책동향

정책동향 김장동향 및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04. / 11.10.)

□ 김장동향 및 주요대책

- [김장동향, 11.9. 기준] 11월 상순, 강원·경기 일부 지역부터 김장 시작, 현재까지 김장은 약 18% 진행 중이며, 11월 하순~12월 상순 집중될 전망
- [주요대책] 수급 관련 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자율적 수급조정 지원, 비축물량 등 김장성수기 집중공급, 김장비용 절감 대책 등 추진, 관계기관(농식품부, 농진청, aT, 농협, KRED) 합동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 운영(11.7.~12.20.)
 - (정보제공) 지역별 작황가격 동향,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무차별하게 제공하여 경제 주체의 합리적 판단을 통한 시장의 자율 수급조절 지원
 - (공급안정) 상시비축 및 출하안정제(계약재배) 물량 62.5천 톤 확보하고, 김장성수기 집중 공급을 통해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응
 - (김장비용절감)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 100개소, 공영홈쇼핑 판매, 비축물량 직거래 등을 통해 소비자 김장비용 절감 추진

□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수급안정 대책

- [배추 동향] 11월 상순, 잦은 강우, 한파 등에 따른 출하작업 여건 악화와 대형 마트 등 김장채소 특판행사 물량 사전확보 등 소비 증가로 도매가격 상승*
 - ※ (10월 하순) 1,975원/개 → (11월 상순) 2,068
 - (전망) 김장배추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어 도매시장 가격(상품기준)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
 - ※ 재배면적(11,429ha) 전년대비 10%↓, 공급량(1,233천 톤) 전년대비 14%↓
 - (대책) 계획된 수급조절 물량 15,500톤(상시비축* 10.5, 출하안정제** 5)을 차질 없이 확보, 추가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여 김장성수기에 집중 공급
 - ※ (상시비축, 10,500톤) 현재 3,000톤(저장 2,300, 포전 700) 확보하였고, 11월 중순까지 잔여물량 7,500톤(저장 2,000, 포전 5,500) 확보할 계획(aT)
 - ※※ (출하안정제, 5,000톤 + a) 수급조절의무 물량(11월) 5천 톤 확보하였으며,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4천 톤 추가 확보토록 추진(농협)
- [무 동향] 가을무 파종기와 여름철 폭염이 일부 겹쳐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생육 지연에 따른 출하가 늦어져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최근 하락*
 - ※ (10월 하순) 2,363원/개 → (11월 상순) 1,468

Vol. 46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6. 11. 14.

■ 정책동향

김장동향 및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등

■ 해외단신 & 국내단신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와 국제기구 동향 등

■ 연구지원

2016년 스마트 팜 성과분석 결과 등

■ 현안분석

농업법인 실태조사

☞ **정책동향**

- (수급) 재배면적(5,414ha)은 전년대비 6% 감소, 공급량(438천 톤)은 전년대비 16% 감소하여 **적정 수요량(488천 톤)에 비해 50천 톤(10%↓) 부족할** 전망
- (가격) 가을작형 출하량 감소로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87% 수준 높게 형성** 되었으나 **최근 하락***
 ※ (10월 하순) 2,363원/개 → (10.31.) 1,584원 → (11.1.) 1,387원
- (전망) 11월 중순 이후 전남(영암, 나주 등) 지역으로 출하지역이 확대되며 **가격은 현 수준에서 보합세** 전망
- (대책) 상시비축(2천 톤)과 출하안정제 물량(17천 톤) 사전 확보 등*을 통해 감장철 및 수급불안에 선제적 대응 추진
 ※ 제주 겨울무 작황 피해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수매비축 물량 검토
- [건고추 동향]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2016년산 생산량 감소 예상에도 **재고량 과다** 등으로 **산지가격이 낮게 형성된 후 지속**
 - (수급) 재배면적 32,179ha(통계청)에 추정단수(KREI) 적용 시, **2016년산 고추 생산량은 전년대비 12천 톤 적은 86천 톤 예상***
 ※ 재배면적(32,179ha) 전년대비 7%↓, 생산량 전년대비 12%↓
 - (가격) 도·소매 및 산지가격 모두 **전·평년 대비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최근 약하락세**
 - (전망) 감장철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현 수준에서 보합세 또는 약보합세** 전망
 - (대책) 감장철에도 건고추 가격은 낮게 지속될 전망인 바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산지가격 지지 등 대책 추진**
- [마늘 동향] 2016년산 생산량이 평년대비 16% 줄어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50천 톤 (수요량 대비 13%) 부족**한 상황이며, **가격은 전년수준으로 높게** 형성
 - (수급) 2016년산 생산량은 276천 톤(평년대비 16%↓)으로, 수입량 등을 감안한 **공급량(336천 톤)은 수요량(386천 톤) 대비 50천 톤 부족***
 ※ 마늘 재배면적(20,759ha) 전년대비 1%↑, 생산단수 전년대비 4%↑
 - (가격) 저장물량이 출하된 8월부터 높은 가격을 형성하여 현재는 **보합세 유지, 수급조절매뉴얼상 「(상승)경계」 단계**
 - (전망) 수급상 부족량이 많고 수입산 가격(중국도 생산량 감소로 가격상승)도 높아 현행 **7,000원/kg 내외 가격유지** 전망
 - (대책) 정부비축물량 집중 방출(5.3톤)과 TRQ 추가 운용(30천 톤) 등을 통해 **마늘 가격 추가상승 억제** 추진

☞ **정책동향**

연내 농업진흥지역 15천ha 추가 정비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1.)

- [농식품부, 연내 농업진흥지역 15천ha 추가 정비 추진] 추가 정비유형(안) △해제: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변경**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2015년 말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발표 후 지난 6월 말 85천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취해지는 조치
 ※※ 변경 시 6차산업화시설, 농수산업 관련시설, 일반주택, 소매점 등 행위제한 완화
- (추진 일정) 추가 정비유형 지자체 조사(11월) → 정비유형 검토 및 확정(12월 말) → 변경·해제 법적 절차 이행(~2017.1월)

정비유형(안)	해제	변경
①-1. 하천(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인해 3ha이하로 분리된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저수지 상류 500m 이내 제외)	○	
①-2. 하천(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인해 3~5ha로 분리된 농업진흥구역		○
② 산간지에서 3~5ha로 분리된 농업진흥구역 및 경지정리 사이외곽의 3~5ha 미경지정리 농업진흥구역		○
③ 농업진흥구역내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 중 사실상 농지		○
④ 사군 경계 3ha이하 분리지역	○	○

※ 6월 말 변경·해제 기준에 신규로 부합되는 지역 포함

농식품부, '금요 농정신문고' 첫 운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04.)

- [농식품부, 민원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금요 농정신문고*' 첫 운영, 11.4.] 농업재해보험, 친환경농산물,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피버스테이 확대 등에 대해 답변
 ※ 현장방문,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건의·민원 중 일부에 대해, 장관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장 농정' 실천하고,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 위해 추진
- (주요 내용) ①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에 재해사고 시 보험금 바로 지급, ② 과수 일소피해 재해보험 항목에 추가, ③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필요, ④ 무허가 축사적법화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 강구, ⑤ 해피버스테이를 지방으로 확대 운영
- (향후 계획) '금요 농정신문고' 개최(월 1~2회)하면서, 현장의 소중한 의견 중에, 필요한 부분은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개선

수발아 피해벼 잠정등의 규격으로 매입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08.)

- [농식품부, 벼 수발아* 피해 농가 시장격리곡 매입 시 잠정등의 규격(A·B) 확대 신설 벼 수확기의 잦은 강우, 고온 등으로 전북·전남·경북·경남·부산지역에 수발아 피해 발생면적**이 급증함에 따라, 수발아 피해곡 매입을 위해 잠정등의 규격 확대 신설, 11.7일부터 피해곡 매입을 실시하기로 방침 결정
 - ※ 벼 이삭에서 싹이 트는 현상으로 잦은 강우 및 고온 지속으로 발생
 - ※※ 피해면적(10.24. 기준, 잠정): 14,823ha(전북 3,506, 전남 11,216, 경북 13, 경남 42, 부산 46)
- (주요 내용) 우선적으로 시장격리곡 기 배정물량(245천 톤)으로 최대한 매입 후 급주 내 유보물량 5천 톤을 지역별로 추가 배정 실시
- (잠정등의 벼의 가격) A규격은 1등급의 56.70%, B규격은 37.80%,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급 가격을 산정한 후 제현율* 최저한도와 피해립*** 최고한도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
 - ※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을 말함
 - ※※ 손상된 낱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을 말함(농산물검사기준)

▶ 잠정등의 벼의 우선지급금 ▶

우선지급금	1등급(40kg, 조곡)	등외A(40kg, 조곡)	등외B(40kg, 조곡)
포대당가격	45,000원	25,510원	17,010원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제」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0.)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복지 오리농장 인증제」 시행, 11.10.~] 농장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양돈·육계·한·육우·젖소·염소에서 오리로 확대
 -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도입, 현재 110개 농장, 110만여 마리의 소·돼지·닭 인증 받아 동물복지 혜택 누리고 있음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1.)

- 농식품부, 10월 28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소재 봉강천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바이러스 검출(11.11.)

팜(FARM) 활용한 농촌관광상품 다양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1.)

- [농식품부, 특수목적형 팜파티*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11.11.] 농촌관광 상품 다양화를 위해 ‘팜(Farm)’을 시장화 시킬 수 있는 특수목적형 팜파티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2017년 농촌관광 MICE***상품으로 육성
 - ※ 농장을 의미하는 팜(farm)과 파티(party)를 합쳐 농장주가 소비자를 초청해 농촌문화와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 공연, 체험, 농산물 정보 제공 및 판매 등을 하는 행사
 - ※※ 전북 남원 달오름마을과 강원 인제 하추마을에서 각각 대학생과 기업·직장인 대상으로 팜파티 관광상품 시범운영 실시
 - ※※※ MICE: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비즈니스관광’이라고도 함. 일반 관광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음
- (이전) 불특정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먹거리, 영농 등의 체험위주 프로그램 운영 → (향후) 고교생, 대학생, 기업·직장인, 실버세대 등 각 그룹의 선호에 맞는 특수목적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기존 농촌관광 프로그램과 차별화 두고 경쟁력 확보

코리아 세일 페스타, 농식품 소비활성화에 기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09.)

- [코리아 세일 페스타 계기, 농업분야 행사 확대로 위축된 농식품 소비 활성화에 기여] △농축산물...집중할인판매 기간(9.29~10.9.) 동안 할인 농축산물의 총판매액은 901.9억 원으로, 인삼제품 821.7억 원(전년 동기대비 7.7%↑), 한돈제품(삼겹살, 목살, 갈비 등) 77.6억 원(669%↑), △진통주...‘찾아가는 양조장’ (19개소) 판매액 33.4억 원(3.1%↑) △농촌관광...농촌관광지(체험마을, 6차인증사업장 108곳) 방문객수는 42,072명(내국인은 32,685명/외국인 9,387명)(22.8%↑)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화, 창업 지원 본격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09.)

- [농식품부, 쌀 소비 촉진 위한 식품업계 간담회 개최, 11.9.]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확대 등 업계와의 협력체계 강조, 쌀 가공식품 프랜차이즈 육성 등 정부의 쌀 소비 정책 추진 방향 공유
 - (향후 계획) 쌀 가공식품 등 다양한 방식의 쌀 소비를 촉진하고, 보다 직접적인 쌀 소비 효과 창출 정책* 집중 추진
 - ※ 「미(米)리클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쌀 제품 개발·전문가 멘토링 및 식품기업 협력을 ‘라이스 랩(Rice Lab)’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외식분야 청년 창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 중

WTO 환경상품협정(EGA) 업계 간담회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6.11.08.)

- [WTO EGA 업계 간담회 개최 11.7] 18차 실무협상*(11.26.~12.2., 스위스 제네바) 및 EGA 장관회의(12.3.~4.)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협상*이 **금년 말 타결될 가능성에 대비**, 우리나라의 협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응방안 최종 점검**
 - ※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EGA 협상은 2014.7월 출범한 이후 17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의 대상으로 304개 품목으로 축소하였으며, 금번 18차 협상에서는 품목이 보다 축소되어 최종리스트 윤곽이 드러날 전망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제5차 협상 개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6.11.08.)

-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 제5차 협상* 개최 11.7.~11., 에콰도르]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지적권, 정부조달, 협력 등 전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목표로 협상 추진, 특히 양국의 민감도와 관심도를 고려한 상품시장 개방협상을 통해 협상 가속화
 - ※ 제1차(‘16.1월, 키토), 제2차(‘16.3월, 서울), 제3차(‘16.8월, 키토), 제4차(‘16.10월, 서울)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체계(HSK) 개편

자료 : 기획재정부(2016.11.03.)

- [기획재정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를 개정·공포, 2017.1.1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안은 2015.10월부터 2016.9월까지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T/F팀 운영을 거쳐 마련, 신상품 등에 대해 통일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에 **도움** 기대
 - ※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교역 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운영하는 품목 분류체계(HS, Harmonized System)를 우리 상황에 맞게 세분화한 분류체계

개정 주요 내용
첫째, 내년부터 발효예정인 WCO HS협약 개정안(HS2017) 반영해 식품관련 모터링 관련 품목 및 교역량 확대 품목 신설 - 어류의 내장 등 식용 설육을 신설하고 건조생동어류를 세분화 - 신제품 출현과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복합부품집적회로(MCO), 하이브리드전지차 품목 신설
둘째, 신산업 관련 품목 신설 - 3D프린터, OLED 디스플레이 모듈, 이차전지 등 신산업 품목을 세분화
셋째,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품목 통폐합하고 정보기술협정*(ITA) 양허 품목 신설 - 최근 교역량이 감소한 필름, 플로피 디스크, 화물운반용 자전거, 순찰시계 등을 삭제 - ITA 확대 협상 타결에 따라 IT제품 제조장비, IT소재 제품, 광학의료기기 등 86개 품목(10단위 기준) 신설

※ 정보기술(IT) 제품의 관세장벽 철폐를 추진하는 WTO 협정으로 1997년 발효 후 2015.12월 확대 협상 타결

해외단신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와 국제기구 동향

□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와 국제기구 동향

- [대상국가] 세계
- [자료출처] World Bank; FAO
-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파리협정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였음. 55개국 이상 비준, 비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55% 이상 조건을 만족하여 **2016년 11월 4일 발효*됨**.
 - ※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함.
- 2016년 11월 7~18일까지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최하며 파리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World Bank] 의장 Jim Young Kim은 11월 3일 담화에서 아래와 같이 강조

개도국 중심으로 환경 대응형 기간시설 구축	향후 15년 동안 전 세계 기간시설 투자는 90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대부분 개도국에 집중). 탄소배출을 적게 하고 기후 변화를 견딜 수 있는 (climate-resilient) 형태로 유인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음.
청정·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과 수소화물화탄소(HFC) 저감을 서둘러야 함. 에너지 수요가 많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기후변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 함양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1억 명이 극심한 빈곤 사태를 다시 겪을 것임.
재정 부문 협력 강화	개도국에 무상 재정 지원을 하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FAO]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2016” 에서 대응 방향과 전략 제시

- 기아를 줄이면서 적시에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해야 하는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했음.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것이므로, **농업·식품 부문에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함.
- 수익을 내면서도 **지속가능한 영농방식**(효율적 질소 시비, 내열성 품종 보급, 무경운 농법 등)으로 **전환**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함.
- 약 5억 명에 달하는 소규모 농가(small-holders)는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가의 기후 변화 리스크를 경감시켜야 **기아 감소와 식량 안보까지 달성**할 수 있음.
-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계속 기여해야 함. 농업, 임업, 토지용도 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0%**에 달함.
- 파리 기후협정을 토대로 **농업·식품 시스템 전반의 대응을 강화**해야 함.
- 기후, 농업, 식품, 영양 관련 정책을 **재정비**해야 함.
- **농업 및 환경 부문 재정을 연계**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 부문의 전환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를 이끌어야 함.

국내단신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 [대상국가] 한국
- [자료출처] 환경부, 2015.12.22. / 2016.4.22. / 2016.11.7.
-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2015년 12월 22일 녹색성장위원회 심의·확정**
 - ※ 20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 지난 2010년 14개 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했던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기후 전망자료 마련, 농수산·건강·생태계·인프라 등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관리강화, 지자체 대책 수립(17개 광역, 168개 기초) 등 성과)을 기반으로 보완해 발전시킴.
- (국제적) 적응 중요성 강조, (국내적) 고령화 가속으로 인한 위험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반영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비전과 목표

비 전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	
목 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감소 및 기회의 현실화	
4대정책	1. 과학적 위험관리	2. 안전한 사회건설
	3. 산업계 경쟁력 확보	4.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이행기반	5. 국내·외 이행기반 마련	
점 검	적응대책 핵심지표·부문별 성과지표	

- 정부, 2015년 6월 제출한 국가별 기여*(NDC)의 이행을 위해 **올해 중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행평가 체계를 구축**할 예정
 - ※ 협약 이행 위한 각국의 감축목표, 적응정책 등 각국이 스스로 결정해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

연구지원 2016년 스마트 팜 성과분석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04.)

☐ 개요

- [농식품부, 2016년 스마트 팜 성과분석* 결과 발표, 11.4] 스마트 팜 도입에 대한 생산성 향상 분석
 - ※ (조사기간 및 수행기관) 2016.8.9.~10.9. /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대상) 스마트 팜 도입농가 226호, 표본추출: 분야·지역별 비례배분 할당(유효표본 84호)
- (생산성) 도입 전 대비 평균 생산량 27.9%↑, 고용노동비 15.9%↓, 1인당 생산량 40.4%↑, 생산량 대폭 증가에도 비료비 등은 5.1% 이내로 소폭 증가, 1년차 대비 2년차 생산성이 8.9% 추가 향상
- (재 해) 병충해 및 질병발생 횟수 평균 53.7%, 피해액 57.3%↓, 과학적인 생산 관리를 통해 농가 경영위험을 상당부분 절감
- (만족도) 도입농가들의 스마트 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 자가노동 절감 및 시설 추천의향(6.1/7점), 경영 도움 및 시설확대의향(5.8점)

☐ 스마트 팜 도입농가 성과분석 결과

- [시설원에 분야 분석결과(59개 표본)]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생산성 27.9% 향상, 조사 2년차 농가 생산성 전년대비 8.9% 추가 향상(20개 표본농가)

구 분	항 목	분석결과	
정량지표	생산량증가	단위면적당 생산량(kg/m ²)	27.9% 증가
		1인당 생산량*	40.4% 증가
	노동력절감	고용노동비 감소율	15.9% 감소
	품질향상	수율 향상률**	4.7% 증가
재해관리	병충해 및 질병 발생 감소율	발생 53.7% 감소 및 피해액 57.3% 감소	
정성지표	만족도 (7점 만점)	생산성 향상 만족도	5.3점
		농업경영 도움정도 만족도	5.8점
		비용절감 만족도	4.8점
	의향 (7점 만점)	자가노동 절감 만족도	6.1점
시설확대 의향도		5.8점	

※ 작물생산에 참여한 전체 노동력(자가 노동+고용노동) 1인당 생산량
 ※※ 작물 생산량 중 실제 상품으로 출하되는 물량 비율의 변화

☞ 연구지원

- [축산(양돈) 분야(21개 표본)] 양돈분야 스마트 팜 도입농가의 모든 및 자돈의 전반적인 생육지표(출산율, 품질향상, 생육관리)들이 향상되어 경영에 도움

구분	항목	분석결과	
정량지표	분만율*	2.5% 증가	
	도체등급률**	6.9% 증가	
	사료비 감소율	9.2% 감소	
	고용노동비 감소율	6.6% 감소	
	질병발생 피해액 감소율	43.9% 감소	
정성지표	만족도 (7점 만점)	생산성 향상 만족도	4.6점
		농업경영 도움정도 만족도	5.5점
		비용절감 만족도	4.3점
		자가노동 절감 만족도	5.9점
	의향 (7점 만점)	추천의향도	5.9점
		시설확대 의향도	6.4점

* 분만율은 분만복수를 분만에정 교배두수로 나눈 값
 ** 비육돈 도체의 등급이 A, B 등급 출현비율

- 과수 분야(4개 표본)

구분	항목	분석결과	
정량지표	생산량증가	단위면적당 생산량(kg/㎡)	26.8% 증가
		1인당 생산량*	33.9% 증가
	품질향상	수율 향상률**	6.6% 증가
	재해관리	병충해 및 질병 발생 감소율	발생 0.5% 감소 및 피해액 51.5% 감소
정성지표	만족도 (7점 만점)	생산성 향상 만족도	5.0점
		농업경영 도움정도 만족도	5.5점
		비용절감 만족도	4.3점
		자가노동 절감 만족도	6.5점
	의향 (7점 만점)	추천의향도	6.0점
		시설확대 의향도	5.8점

* 작물생산에 참여한 전체 노동력(자가 노동+고용노동) 1인당 생산량 변화
 ** 작물 생산량 중 실제 상품으로 출하되는 물량 비율의 변화

- [향후 계획] 스마트 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지속, 초기단계의 원격제어 수준을 넘어 데이터를 분석해 활용하는 정밀과학영농 활성화 지원

- 올해 5월부터 선도농가 생육관리 벤치마킹 서비스* 시행,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작목별 ‘최적 생육관리 S/W***’ 완성·보급
 - * 스마트 팜 우수 농가에서 환경(온습도, 광, 관수양액) 및 생육정보(길이, 굵기, 열매수) 등을 수집 분석하여 스마트 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농가에 제공(<http://smartfarmkorea.net>)
 - ** 개발 일정: ('16) 토마토 → ('18) 국화(대륜계, 신마), 파프리카, 딸기, 돼지 → ('19) 버섯(느타리) → ('20) 잣소 → ('21) 닭 → ('22) 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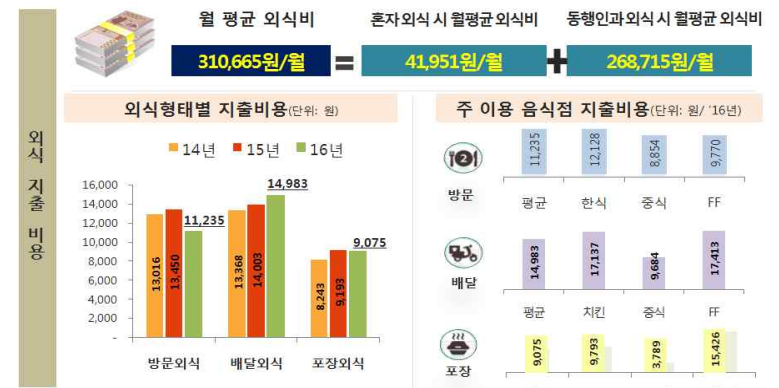
☞ 연구지원

2016 외식소비 행태분석 및 2017 외식 트렌드 전망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04.)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6년 외식소비 행태분석 조사결과 및 2017년 외식트렌드 발표, 11.4.] 외식업 경영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외식 소비행태를 조사, 그 결과를 매년 연말 내년도 외식트렌드 전망과 함께 발표
- [2016년 외식소비행태조사] 소비자 3,04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2016.9.14.~27.,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결과를 분석

2016년 외식소비 행태분석



연구지원

- [2016년 외식 관련 환경조사* 결과] 총 6개의 현상으로 군집화

※ 외식관련 잡지, 신문기사, 서적·학술지·각종 보고서·인터넷 기사검색·전문가 인터뷰

2016년 주요 외식소비 키워드

푸드서비스테크의 진화	빅데이터 활용	배달앱	셀프 결제
	전자 메뉴판	키오스크 주문	스마트 외식운영
1인 외식의 성장	1인용	포장외식	혼술
	소포장	HMR	혼밥
하이브리드 외식	클라보	행릿중후군	단판단판
	투 콘셉트	포스트치맥	
가성비	무한리필	대용량	PB상품
	저가격 고품질	냉장디저트	
푸드 편집샵	복합외식공간	연예기획사 클라보	전국 유명맛집
	전국 유명제과	해외 유명맛집	
패스트 캐주얼	간편 식사	프리미엄 분식	수제버거
	건강한 음식	건강한 식재료	푸드트럭

- [2017년 외식트렌드 전망] 소비자 3,0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외식소비행태 조사와 20명의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

2017년 외식트렌드

1. '나홀로 열풍'	• 혼밥 뿐만 아니라, 혼술, 혼커플(혼자커플 줄임말) 등 1인 외식이 보편화 되는 소비시대 도래
2. 반(半)외식의 다양화	• 배달앱 등 주변기술의 발달을 통해 개인 취향에 맞춰 포장외식을 다양하게 소비
3. '패스트 프리미엄(Fast-Premium)'	• 식사 형태는 간편하고 빠르게, 음식은 건강하고 알차게 고급화된 상품을 선호
4. '모던한식의 리푸팅'	• 퓨전한식의 대중화, 한식과 외국식의 조합 등을 통해 또 다른 장르의 한식이 오너셰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연구지원

2016년 국내외 디저트 외식시장 조사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0.)

개요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2016년 국내외 디저트* 외식시장 조사결과 발표, 11.10.] 국내 디저트 외식시장 규모는 2014년 매출액 기준 약 8.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성장, 전체 외식시장(83.8조 원)의 약 10.7% 차지
 - ※ 디저트의 범위는 '식후에 제공되는 음식 또는 음료류와 더불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가벼운 음식'으로 정의, 통계청·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증권사·연구소·협회 등 민간기관에서 발표한 다수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디저트포목별 외식시장 조사결과 도출
 -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상 제과점업(4조682십억 원) 및 비알콜 음료점업(4조294십억 원) 합계로 추정
- (향후 계획) 외식 소비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 하고, 외식경영주들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제공

주요 내용

- [시장동향] 제과·제빵은 베이커리 카페·단일포목 전문점 등으로 시장이 세분화 되는 추세, 커피전문점은 고급커피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 주스·차는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문화 및 프리미엄화 추세
- [구매 경험 빈도(다중응답분석)] 빵류(91.3%) > 커피(87.5%) > 아이스크림(75.0%) 순이었으며, 떡류는 40.0%로 구매경험이 낮아
- [구매 경험이 있는 디저트의 종류는 평균 5개] 남성보다는 여성이, 50대 이상보다 20-30대 소비자가, 타 지역보다 서울지역 내 소비자가 더 다양한 디저트를 구매
- [방문 빈도] 주 2-3회(33.9%) > 월 1-3회(29.0%) > 주 1회(23.9%) > 주 4회 이상(10.2%) 순
- [방문 동행인(다중응답분석)] 친구(29.8%) > 가족(24.9%) > 혼자(19.3%) 순
- [방문시간] 주말(33.3%) > 점심 식사 후(24.4%) > 수시로(19.5%) 순
- [소비금액(1회/1인 기준)] 5-7천 원(31.1%) > 7천 원-1만 원(28.4%) > 2-5천 원(23.6%) 순이었으며, 1만 원 이상도 15.8%

현안분석

현안분석 농업법인 실태조사

※ 농업법인 관련 보고서 및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업법인 현황

- [연혁] 농업법인제도는 생산성 향상, 취업기회 증대 등을 도모하고자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도입되었음(김수석·박석두, 2006).
 -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 형태로 도입하였고, 1995년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함.
- [제도 변화] 농업법인제도 도입 이후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왔음.

영농조합법인 제도 변천 과정

구분	1990년 제정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8년 개정	2009년 개정
근거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영농조합법인	농지	■ 농지소유 가능 ■ 상한 규정 없음	조합원 1인당 소유상한 한산면적	「농지법」의 농업인 소유 규정 적용	
	주체	■ 당해 사군 거주 ■ 3년 이상 영농 ■ 1ha 미만 농지소유자	■ 유지 ■ 소유상한 폐지	■ 거주지 요건 폐지 ■ 영농기간 요건 폐지 ■ 농업인생산자단체 ■ 의결권 없는 출자자=준조합원 도입	
	출자	■ 농자현물 한정 ■ 인당 출자액 1/3 이하	■ 현금출자 가능 ■ 유지	■ 준조합원 출자액은 총출 자액의 1/3 이하로 제한	■ 준조합원 출자한도 폐지
비영농조합법인	농지	불가능	조건부 소유 가능 ¹⁾	조건부 소유 가능 ²⁾	
	주체	농민	농민생산자단체농지 개량조합	비농업인 출자 가능	농지개량조합 삭제
	출자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 출자액의 1/2(주식회사는 1/3) 이하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 출자액의 3/4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90/100

주: 1) 농업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1/2 이상, 농업인이 대표사원, 업무집행권 보유 사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에 농지 소유 가능, 2) 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 가진 자가 1/3 이상 농업인이면 소유 가능
자료: 김정호 외(2015a) 재구성

농업법인 실태조사: 운영 현황

- [운영 현황] 농업법인 중 현재 운영 중인 법인 비중은 2014년 60.0%에서 2016년 47.5%로 감소하였음.
 - 같은 기간 농업법인은 약 1만 개가 증가한 반면, 운영 법인 수는 감소하였음.
 - 미운영 비중은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보다 높음.
 - 실태 파악이 어려운 법인 개수와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음.

현안분석

농업법인 운영 실태

(단위: 개소, %)

연도	구분	합계	운영	미운영	소재불명/미기재
2014년	합계	42,549 (100.0)	25,527 (60.0)	12,629 (29.7)	4,393 (10.3)
	영농조합법인	33,590 (100.0)	20,407 (60.8)	10,154 (30.2)	3,029 (9.0)
	농업회사법인	8,959 (100.0)	5,120 (57.1)	2,475 (27.6)	1,364 (15.2)
2016년	합계	52,293 (100.0)	24,825 (47.5)	18,371 (35.1)	9,097 (17.4)
	영농조합법인	37,453 (100.0)	17,416 (46.5)	14,267 (38.1)	5,770 (15.4)
	농업회사법인	14,840 (100.0)	7,409 (49.9)	4,104 (27.7)	3,327 (22.4)

주: '미운영'은 운영 준비, 임시 휴업, 휴업, 폐업, 일반법인 전환, 기타를 포함함
자료: 2014년 자료는 김정호 외(2015a), 2016년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2016) 참고 재구성

개선 과제

- [조사 체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어업법인조사」와 조사결과가 상이*함. 설립
등기된 법인 수와 운영 중인 법인 수가 달라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
※ 통계청 조사는 2001년부터 출자자 개별운영 법인은 제외, 2010년부터 조사 대상
사업체 단위에서 기업체 단위로 변경
- [관리 체계] 2014, 2016년 실태조사에서 모두 운영 실적이 없지만 형식상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법인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제도 정비] 기업의 농업 생산 부문 진입 관련하여 기존 농업법인 제도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현행 농업법인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개선과제를 심층 분석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농지 소유권 허용 여부에 따라 농업법인을 농업생산
법인과 일반 농업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음(김정호 외, 2015b).

참고문헌

- 김수석·박석두, 2006.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박영기·강상현·심은숙·최은아, 2015a.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분석. (사)환경농업연구원.
- 김정호·정영환·최은아, 2015b. 농업법인조사 개선방안. (사)환경농업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6. 비정상의 정상화, 농업법인 대대적 정비 추진. 2016.10.25. 보도자료.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